

예산확보 손 놓은 광주시 간부 공무원들

시의회 예결위 심사서 예산설명에 소극적

예결위원들, 복지부동 질타... 추가 삭감 예고

4일 시작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반재신)의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 심사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운영한 광주시장의 시정철학이 담긴 관련 예산 등이 대폭 삭감됐음에도 시정 간부 공무원들이 삭감 예산에 대한 설명에 소극적으로 나서서 등 예산확보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날 첫 예결위 심사에서 예결위원들이 각 실·국 간부들의 '복지부동'을 질타하며 예산 추가 삭감을 예고했다.

이날 시작된 시의회 예결위는 개회 10분만

예결위소동이 벌어지는 등 파행을 빚었다.

김보현(새정치·서구2) 의원은 이날 예산심사에서 광주시의 준비부족 등 안일한 대처에 대해 강도높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시장이 바뀌니 공무원들이 달라지더라"면서 "단 한번도 삭감 예산에 대해 이렇다할 설명도 하지 않고 도리어 깎아뺏기면 깎아뺏기식이다"며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주 상임위에서 내년도 광주시 예산 3조8000억원 가운데 102억원을 삭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예전 강운태 시장은 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될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설명이 부족했다고 여기고 공무원들에게 강하게 책임을 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무진만 이리저리 뛰어 다니고 국장들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설명도, 대안도 내놓지 않는다"면서 "이런 건 회의를 떠나서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예산삭감과 관련, "다음 선거때 보자"는 등의 압력문자와 압력전화를 받았고, 심지어 인신비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 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냥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의원들의 추가 삭감안에 대해서는만 결정을 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재신(새정치·북구1) 예결위원장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 뿐 아니라 각 실·국장이 단 한번도 의회에 찾아와 삭감된 예산과 관련한 설명을 해본 적이 없다"면서 "일부 과장 몇명만이 찾아와 설명을 했을 뿐"이라고 시 간부들의 복지부동을 질타했다.

반 위원장은 이어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된 예산을 살리려는 노력 뿐 아니라 의욕조차도 없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 곳이 행정기관인지 싶다"면서 "이런식으로 간단편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추가 삭감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예결위는 최근 광주시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 51억원을 삭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사장

내달 중순 임명될 듯

전임 사장의 사퇴로 공석으로 남은 전남도 유일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 신입 사장이 내년 1월 중순경에 임명될 전망이다.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오는 8일 첫 회의를 갖고 공모 방식 및 기간 등 절차를 논의한다.

4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전남지사 2명, 전남도의회 의장 3명, 개발공사 이사회 2명 등 모두 7명의 위원이 모두 추천됐다. 첫 회의에서 별다른 마찰이 없는 것을 전제로 공모기간(15일 이상), 심사 및 면접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신임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전남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는 공모 참가자 중 2명을 이낙연 전남지사에게 추천하게 돼 있다. 2명 가운데 이 지사가 신임 사장을 최종 낙점하는 방식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초등생들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참가 4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동창 나정국) 주민센터에서 열린 '사랑 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가한 용주초등학교 학생들이 새마을 부녀회원들과 함께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 줄 김치를 담그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6·4 지방선거 광주·전남 당선자 11명 기소

어제 공소시효 만료 ... 4명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6·4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4일, 광주와 전남에서는 11명의 당선자가 기소됐다.

이 중 4명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광주 1명, 전남 10명이다.

단체장 4명,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5명이다.

광주에서는 노희용 동구정장이 유일하게 기소 기소됐다.

노 구정장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뇌물을 받아 주민 수백명에게 과일과 인삼세트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노 구정장은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전남지역에서는 김성 장흥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김철주 무안군수 등 3명의 단체장과 전남도의원 2명, 기초의원 5명 등 모두 10명이 기소됐다.

이 가운데 김성 장흥군수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유두석 장성군수와 김철주 무안군수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남도의원 2명과 기초의원 1명은 현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기초의원들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거나 벌금 100만원이 넘는 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검은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구속 입건한 선거사범 및 선거관련사범 사건이 609건(동일인 중복 포함)에 달하며 이 중 구속은 25건이라고 전했다. 구속이나 입건 건수 모두 전국 최다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사범 183건, 흑색선전사범 166건,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 186건, 정치자금법 9건 등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5급 이상 공무원 450여명

상하위 직원 25명에 청렴도 평가 받는다

내년부터 매년 한차례씩

5급까지 확대 전국 최초

앞으로 전남도의 5급 이상 공무원은 내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상위·동료·하위 직급 직원 25명으로부터 청렴도 평가를 받게 된다.

전문가관이 맡아 실시하는 이 청렴도 평가는 이낙연 전남지사에게 밀봉된 채 전달돼 인사 참고자료로 쓰이게 되는데, 청렴도 평가대상을 5급까지 확대한 지자체는 전남도가 최초다.

전남도는 1일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최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한 달간 전남도 소속 연기관, 지도관 포함 5급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450여명은 직무정립성, 청렴실천 노력, 조직문화 향상도, 준법성 등 4개 분야 24개 항목에 대해 자신의 상위·동료·하위 직원 25명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점수는 상위 20%, 동료 30%, 하위 50%로 가중치를 뒤 하위 직급 직원들의 평가를 중시했다.

또 전남도 직원들은 청렴도에 따라 가점과 감점을 받아 가(150점 이상)~마(40점 미만) 등급까지 5단계로 분류된다. 각 실·과장은 매년 10월말 실적을 입력하고 감사관실은 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급부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200점, 급부수진사고 시 100점이 더해지는데 반해 중징계 처분 대상 행위가 외부기관에 적발 시 100점, 규정 외 법인카드 사용으로 반제 조치 결정이 내려지면 30점을 감점하게 된다.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도 실·과·소, 산하기관, 시·군 112곳과 공직자에 대해서는 단체(5곳)·기관(3곳)·개인(5명) 부문으로 나눠 청렴대상을 시상할 방침이다. 기관 부문 최우수 시·군은 종합감사를 1년 연기할 수 있으며, 개인 수상자는 근무성적평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전남도는 아울러 공사 및 용역 관리, 인·허가, 보조금 지원 등과 관련된 '청렴 해피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마일리지제도' 등의 세부기준을 공표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진도군청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세월호 사고 수습공로

곽봉용씨 대통령 표창

진도군과 진도군청 공무원이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대처와 수습 공로로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5일 제9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2014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을 열어 지역사회에서 남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 단체 등 267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한다고 4일 밝혔다.

행자부는 공적기간, 내용, 수행환경, 성과 등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심사·선정했다.

진도군청 공무원인 곽봉용(41)씨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초동대응을 하고 구호물품 및 자원봉사자를 관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곽씨는 110일 동안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

항에 상주하면서 실종자 가족을 지원했다.

세월호 사고로 생활이 어려워진 인근 섬 지역 영세 숙박업 및 자영업자, 일용근로자에게는 긴급생계비 2000만원 가량이 지원되도록 했다.

진도군청도 세월호 침몰사고 초동대처 및 수습지원을 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

대한적십자 안산지구 박팔문(55) 회장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봉사자들을 위한 급식봉사를 하고, 안산분항소 내 조문객 안내봉사 및 유가족 대기실에 필요한 물품 지원 등 공로를 인정받아 같은 표창을 받는다.

정중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자원봉사자는 우리 사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며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한 진흥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경품행사

자산건전성 8년연속 1등급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 기념

행사기간 : 9월 1일 ~ 12월 31일(4개월)

자력대상자점률 응모권 및 기념품 증정 (축석복권기념품 포함)

선물1

(개별시 명품 응모권 증정)

1등: 황금열쇠수금1년(1명)

2등: 가전제품 100만원 상당권(2명)

3등: 제주도 항공권 및 숙박권(등인 1인 포함)3명

4등: 온누리상품권 5만원(4명)

5등: 온누리상품권 3만원(100명)

* 상위에 당첨시 남부 물품까지 증정, 복제권금 단번에 무효

선물2

(기념품(약10))

[핸드크림]

[차약세트]

선물3

(개별시 축석복권 증정(100%당첨))

[풍장지갑]

[클러식백]

[세라믹코팅 냄비]

* 상품은 예의지침을 따를 수 있습니다.

경품추첨일

2015년 정기총회(2월 예정)

(5등 경품 선 추첨후 공고)

자격기준

- 자력이세 3년 이상 상규자
- 총자금 10만원 이상 할당고액
- 정기예금 15000원 이상 가입고액
- 대출 1,000만원 이상 상환고액
-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가입고액
- 전차금률 상규자
- * 상품추첨일까지 정상유지 및 미용 기거자
- * 참가 자격기준은 회원에 한함

MG 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 062)223-8007, 232-7251 대인동 한미쇼핑 1층

충장지점 : 062)223-7217, 223-7218 충장로 5가 입구

화순아울렛

밀레·라푸마

OPEN!!

MILLET

MOUNTAIN BY EXPERIENCE

COLDZERO

빈틈없이, 온기를 잡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몸을 두껍게 패딩재질로 감싸, 냉기를 차단하고 온기를 유지시키는 밀레의 다용도 신기술

Lafuma Effect

COLDZERO TECHNOLOGY

바람은 온몸으로 휘는 차기소속과 그레프로 피부에 닿아도 달아나지 않는 거칠고 스타일러스한 재질소재를 한 번더 이모티 라푸마 이펙트

Lafuma

061-371-7337 010-8288-3579

Lafuma

061-375-8998 010-3618-9615